

본문에서 발견하기

-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누구 안에서) 창조되었습니까?

- 이 일은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 이 일은 언제 예비하셨습니까?

-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선한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 선한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오늘 순종해야 하는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2:7-9)

-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현재의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나타나고 선포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시간과 역사의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무한한 범위를 가집니다.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자비하심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신 것입니다.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의 보좌로까지 올리신 구원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사랑, 곧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비롯된 은혜가 구원의 원인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에 포함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 우리를 구원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는 하나님이 행위자이심을 나타냅니다. 구원의 전 과정 — 살리심, 일으키심, 앉히심 — 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2:4), 먼저 살리셨습니다(2:5). 구원의 발단·과정·완성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주도 아래 있습니다.
-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2:1). 죽은 자는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선언합니다.
-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받는 자의 공로 없이 주는 자의 뜻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자격을 갖추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 자체가 "선물"의 개념을 내포합니다.
- 그래서 구원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도, 실행도, 믿음을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 에베소서 2:7-9은 구원의 원인(은혜), 수단(믿음), 주체(하나님), 성격(선물)을 명확히 하여,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임을 선언합니다.